

돌봄어르신 행복 위한 동행

지역 사회 든든한 동반자

동행재활요양병원 류기준 대표원장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제 부모님 모셔도 안심되는 병원 사회적 약자·지역사회 동행 최선”



“제 부모님을 모셔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류기준 동행재활요양병원 대표원장은 “다른 지역에는 탄탄한 시설을 갖춘 쾌적한 환경의 재활요양병원이 상당수 있었지만 광주·전남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제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가까이에서 마음 편하게 모실 수 있는 병원이 지역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의료설비와 재활치료시설 등 전반적인 의료설비는 물론, 젊고 능력을 갖춘 의료진을 모시기 위해 노력한 이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시내 외곽에 주로 설립되는 다른 요양병원과 달리 광주 도심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이에 대해 류 원장은 “외곽에 있으면 입원해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기 힘들다”며 “출·퇴근길, 때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부모와 자식이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했다”고 말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다. 같은 자식 된 마음에 가족이 자주 만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했다.

병상간격도 현행법 기준보다 더 넓게 배치해 환자들이 보다 여유롭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자식 된 진심에서 비롯됐다.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치매를 앓는 고령의 환자들이 병상에만 누워있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누구보다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무엇보다 류 원장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병원은 계속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하고 재활을 도와 하루라도 빨리 가정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의료기관이라는 것이다.

류 원장은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될 환자가 장기간 병원에 있는 ‘사회적입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로 진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 외에도 소외계층 등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의료기관으로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했다. 병원 직원들과 헌혈과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나눔에 나서는 것도 지역 사회와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류기준 원장은 “지역과 함께 하루하루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지역민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내 최고 수준 의료시스템... 양·한방 전문 의료진 13명 협진 시너지
‘도심 속 호텔 같은 병원’ 개인 맞춤형 VIP 병동 13실 53병상 운영
생신잔치·이미용 행사 등 다채... 임직원 헌혈·배식 봉사·성금 전달도

긴 세월 가족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부모의 삶의 무게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울 것이다.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뎌오다 보니 몸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기억도 흐려지기 마련이다. 몇 번의 치료보다 한 번의 관심과 배려가 그들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몸 뿐 아니라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굳혀가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병원이자 한 길을 걷는 동반자로 동행한다는 확실한 신념을 지녔다.

◇국내 최고 수준 의료시스템... 양·한방 협진 시너지=동행재활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6월 광주 서구 신안동 광주역 인근에 개원한 뒤 올해 4주년을 맞이한다.

국내 최고 수준 의료장비를 도입해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구축, 몸 기능을 회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펼치고 있다.

우선 올해 한의사(김도연 원장)를 새로 영입하면서 전문 의료진을 더 강화했다. 류기준 대표원장(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과 한의학박사 최태진 병원장을 비롯해 재활의학과전문의 김정민 원장과 외과전문의 박철홍 원장 등 전문의 7명, 한의사 6명 등 13명의 전문 의료진이 함께 한다. 한방과와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양·한방 협진진료를 통해 치료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실질적인 양·한방 협진을 통해 정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의학박사와 한의전문의로 구성된 한의사 의료진을 통해 통증 완화와 면역력 회복, 기억 회복 등 환자 개개인의 한방체질을 분석하고, 이후 침·약침요법, 부항요법, 한방뜸요법, 체질한약 처방 등 다양한 치료방법으로 개개인의 건강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여기에 개원 당시 78실 296병상에서 104실 409병상 규모로 거듭 성장했다. 지하 5층~지상 12층 연면적 1만7268㎡로, 총 175대에 달하는 주차 공간은 물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병실도 갖췄다.

개인 맞춤형 VIP 병동(13실 53병상)도 운영된다. 각종 가전제품과 개인용 서랍장, 휴게·면회 공간 등 ‘도심 속 호텔 같은 병원’을 표방하고 있다. 병실은 1인·2인·3인·6인실 등 다양하며, 전문화된 간병인력이 24시간 돌봄을 펼친다.

광주 도심이 흰내려다보이는 11층 ‘하늘재활센터’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전담 치료사 등 50여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재활프로그램 등 최고 수준 의료장비를 도입해 체계적인 재활치료 뿐 아니라 신체장애를 극복하는데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경사침대, 기립책상 등 매트 운동부터 워킹벨을 이용한 보행훈련까지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수술을 겪은 환자에게는 도수치료, 복합운동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동행재활요양병원 재활치료센터가 제공하는 치료는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보행훈련,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 재활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연하재활치료, 언어재활치료, CPM(수동관절운동기구), 신장분사, ESWT(체외충격파), 도수치료(수술 후·중추), 견인치료, 경피신경자극치료, 극초단파치료 등 15종에 달한다.

◇함께 웃으며 성장하는 행복한 동행=동행재활요양병원의 진짜 가치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시스템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다. 환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행복을 함께하려



는 ‘동행’의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동행요양병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가족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다.

코로나19로 각종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연말 직원들이 직접 김치를 담가 환자들에게 김장 밥상을 대접하는 ‘김장데이’를 진행하고, 성탄절을 맞아서는 고령 환자들을 찾아가는 ‘올레 산타’ 이벤트도 마련했다.

천바람이 불기 시작한 봄 ‘봄여방 굿는 데이’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어르신 생신 잔치’와 ‘이미용 하는 날’, ‘장수사진 촬영’ 등 행사를 열어 ‘함께하며 행복하자’는 ‘동행’의 마음을 되새기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감염병 확산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져 임직원들은 발 벗고 나서 혈액 나눔에 동참했다.

지난해 연말에도 병원 입구에 마련된 적십자사 이동식 헌혈차량에서 단체 헌혈을 실시하는 등 매년 꾸준한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또 남구 서동 ‘사랑의 식당’을 찾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식사 제공 및 배식 봉사는 물론, 최근에는 ‘희망 2023 나눔캠페인’에 동참해 생필품을 후원하기도 했다.

광주 서구에서 주관하는 ‘2022년 일사회복지원사업’과 관련해 진행되는 ‘건강마음돌봄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에도 성심껏 나서고 있다.

이밖에 임직원들 역시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한국생명사랑재단과 장애인체육회에 후원을 이어가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행’의 길을 걷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동행재활요양병원 임직원들이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이어지자, 도움을 주고자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다.